회원사 가족이 됐습니다

본 지면은 한국광학기기협회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를 소개하는 면이다.
지난달에는 (주)네온테크가 본 협회의 새로운 가족이 됐다. 회원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들 업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 편집자 주 |

(주)네온테크

세계 최고의 다이싱 전문 업체를 향한 힘찬 도약 시동

▶ 황성일 사장

1999년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는 영신자동화로 출발하여 2000년 10월 23일 지금의 상호로 법인 전환한 (주)네온테크(대표 · 황성일)는 현재 다이싱 공정과 관련된 반도체 장비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다이싱 전문업체로 거듭났다.

2001년 6월 국내 최초로 6″ Wafer를 절단하는 NEON-6010 dicing saw 장비를 개발한 이래, 2003년에는 8″ Full auto dicing saw, 2004년에는 8″ Two spindle dicing saw, 2007년에는 12″ dicing saw 등을 개발완료하여 광기술원을 비롯하여 국내 광전자 관련 유수의 업체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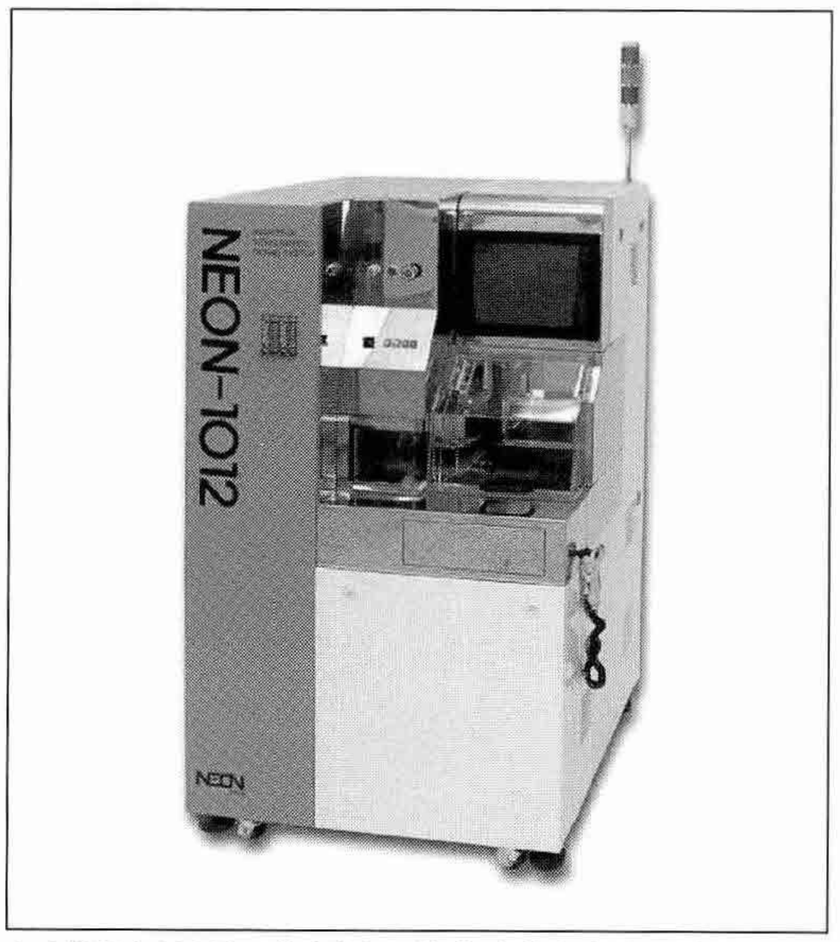
네온테크의 주력제품인 NEON-6010/8010/1012는 웨이퍼를 포함한 다양한 자재를 절단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초정밀 다이싱장비이다. 모든 다이싱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했으며 우수한 스핀들 성능, 석정반을 활용한 베이스, 그리고 최고급 자재 사용으로 최고의 정밀도와 신뢰성을 보장한다. 이들 장비는 1.5KW 또는 2.2KW 고정밀 에어 베어링 스핀들 모터 사용하고, 고정밀 다이싱을 위해 Y-축 및 θ-축에 Linear Scale 보정 기능을 적용하고 있다. 다양한 작업 자재 대응을 위한 Software 옵션, 시스템 안정성이 뛰어난 PLC 등을 사용하며, 터치스크린과 조이스틱 채용으로 조작성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네온테크는 일본제품에만 의존하던 국내시장에 처음으로 국산화 장비인 dicing saw 납품을 시작으로 현재는 일본과 동등한 기술력을 갖추고 새롭고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2007년에는 태국 및 중국에 국내 다이싱 장비 수출을 시작하여 글로벌 기업을 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IR Filter 절단 전용 다이싱을 개발하여 관련업체에도 장비를 납품하고 있으며, 브리이드와 테이프 및 기타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며 난삭제 다이싱 솔루션을 갖춘 업체로 거듭나고 있다.

고객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 직원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 미래 지향적인 회사라는 사훈을 갖고 세계 최고의 다이싱 전문업체로 발돋움 하고자 힘찬 행보를 보이고 있는 네온테크는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과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2006년 8월에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새로운 제품개발과 기술력 배양에 매진하고 있다.

황성일 사장은 "네온테크는 일본제품에 의존하던 국내 다이싱 업계는 물론, 중국, 태국 등 해외 수출발판을 마련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광학기기협회 가입을 계기로 회원사간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하고 나아가 한국광학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 NEON-1012는 웨이퍼를 포함한 다양한 자재를 절단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초정밀 다이싱장비이다.